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등과 같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에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가):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 ② (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 ③ (나):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 ④ (나):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성은 행위가 의지의 자율과 맺는 관계이다.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가 된다.  
 <문제 상황>  
 평소 함께 식사하던 친구가 급식실에 늦게 도착한 A에게 자신의 앞에 서라고 권했다. A는 새치기를 할지 질서를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친구들 사이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②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용에 따른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③ 친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끄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④ 가능한 행위 중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⑤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때[時]를 만났기 때문이고 어찌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리[順]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나 기쁨이 들어올 틈이 없다.  
 을: 삶은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원하는 것[義]이 있기에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 또한 죽음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싫은 것[不義]이 있기에 환란으로 죽더라도 피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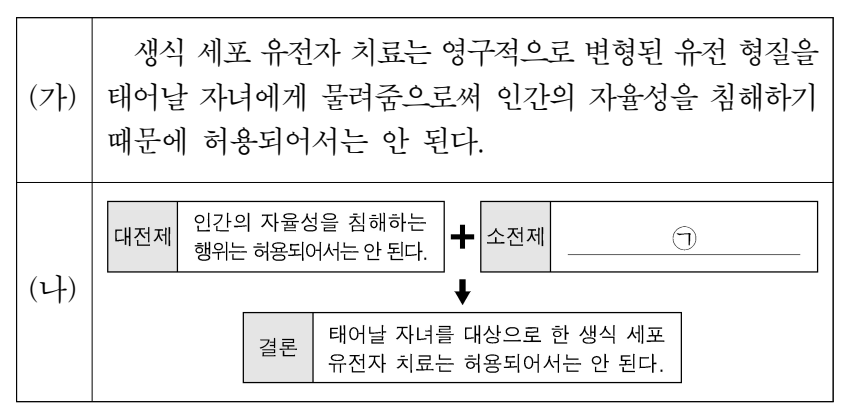
- ① 갑: 죽음을 거부하면서 도덕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삶과 죽음은 낮과 밤처럼 순환하므로 초연하게 대해야 한다.
- ③ 을: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을 받지 않도록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
- ④ 을: 삶과 죽음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수용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삶과 죽음은 슬퍼하거나 기뻐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얼굴을 식별하여 본인임을 인증하는 안면 인식 기술은 비밀번호나 디지털 인증서보다 본인 확인 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하기에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안면 인식 기술에 고도화된 인공 지능을 결합한 안면 인식 인공 지능 기술의 개발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안면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하고 식별하여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갑: 아닙니다. 안면 인식 인공 지능 기술을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 기술의 개발을 허용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안면 인식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테러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판독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기술을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 ① 안면 인식 기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는가?
- ② 안면 인식 인공 지능 기술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가?
- ③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④ 안면 인식 인공 지능 기술은 테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가?
- ⑤ 안면 인식 기술과 고도화된 인공 지능의 결합을 허용해야 하는가?

5.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에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 ②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자녀를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다.
- ③ 고가의 치료비로 유전자 치료 기회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태어날 자녀는 자신의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 ⑤ 부모가 결정한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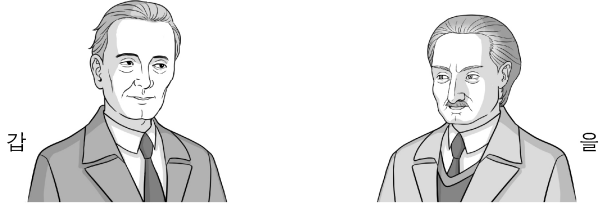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술은 행복과 불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우리는 기술에 붙들려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집니다.



- ① 갑: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공허한 힘이다.
- ② 갑: 기술의 활용 방안은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
- ③ 을: 기술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한다.
- ④ 을: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
- ⑤ 갑과 을: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이때,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 부르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때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

- ①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 ②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 ③ 안정적인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 ④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⑤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 행위이다.

8.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위적인 것[人]으로 자연적인 것[天]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소, 양, 돼지 등의 고기를 먹지만 시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다고 먹는다. 이 넷 중 어느 쪽도 음식 맛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없다.

(나) 예(禮)가 아니면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행동하지도 말아야 한다. 군자는 음식 빛깔이 나쁜 것, 제대로 요리되지 않은 것, 제철 음식이 아닌 것은 먹지 않는다. 또한 음식을 자른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간이 맞지 않아도 먹지 않는다.

- ① (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② (가):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여 인간다움과 의로움을 실현해야 한다.
- ③ (나): 음식의 상태를 고려하여 먹는 것은 인격 수양의 일환이다.
- ④ (나):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은 육체적 생명의 보존에 국한된다.
- ⑤ (가)와 (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을: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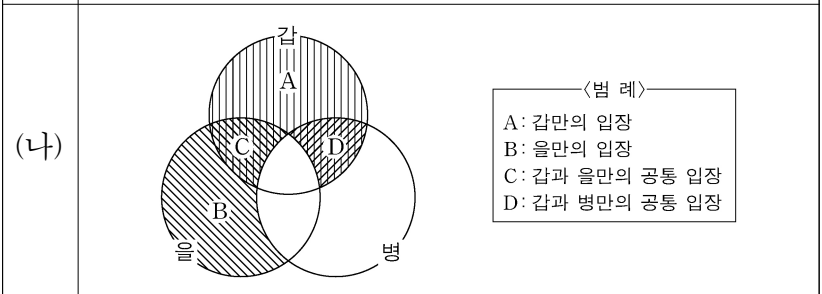
<보 기>

ㄱ. 갑: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ㄴ. 갑: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ㄷ. 을: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ㄹ. 갑과 을: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인간이 고유한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각자의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다.  
 을: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병: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종 차별주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보 기>

ㄱ. A: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ㄴ. B: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ㄷ. C: 인간은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ㄹ. D: 자연 자체의 선은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은 도(道)에 가깝고 무엇과도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을: 두 단의 갈대 중 하나를 치우면 다른 하나도 넘어지듯,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난다. 이 법(法)은 내가 만든 것도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보 기>  
ㄱ. 갑: 인의(仁義)의 강조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ㄴ. 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영원한 실체를 찾아야 한다.  
ㄷ. 을: 집착과 번뇌의 제거를 위한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ㄹ. 갑과 을: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지난 편지에서 자네는 요즘 만나는 이성 친구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도 되는지 물었지. 내 생각은 이러하네. 자네는 사랑이 영혼의 힘이자 활동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더군. 사랑은 상대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갈망이고 보호, 존경, 책임, 이해를 의미하네.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으로 인간의 고립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네. 단지 적절한 사랑의 대상을 찾지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네.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채 좋은 대상을 고르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지 않는 것과 같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는 법이네. 사랑도 그렇다네. 우선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네. ... (후략)

- ①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하나가 될 때 느끼는 영속적 감정이다.  
② 참된 사랑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찾아내는 일이다.  
③ 참된 사랑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상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④ 참된 사랑은 수동적 감정으로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가온다.  
⑤ 참된 사랑은 삶의 기술처럼 학습과 노력으로 계발되는 기술이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람들은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는 그들을 공통된 법률의 지배하에 둬으로써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보 기>  
ㄱ.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ㄴ.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ㄷ. 자연 상태에서 분쟁은 공통된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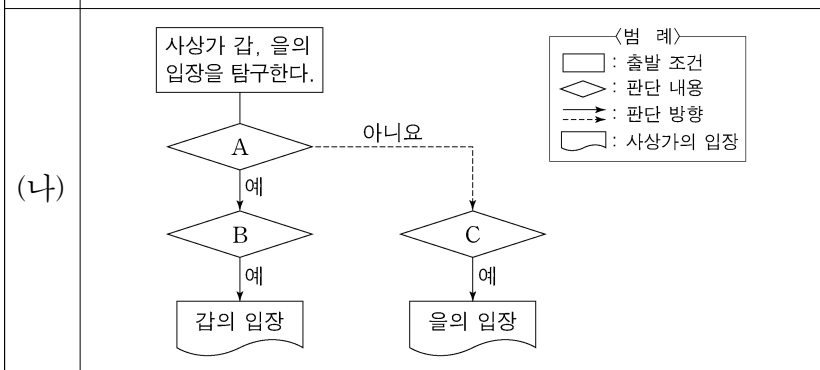
갑: 천하를 두루 이롭게 함은 직분(分)과 예의(義)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살되 역할에 따른 구분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나라가 혼란해져 편히 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람은 잠시도 예의를 버릴 수 없다.  
을: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서로의 일에 간섭한다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보 기>  
ㄱ. 갑: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든 직분에 통달해야 한다.  
ㄴ. 갑: 사회 구성원의 직분을 나누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한다.  
ㄷ. 을: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ㄹ. 갑과 을: 직분의 구분은 공동체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한에서 각자의 자질을 사용하게 한다.  
을: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위한 공정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의 천부적 재능과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는 그 개인에게 있다.



<보 기>  
ㄱ. A: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한가?  
ㄴ. B: 차등의 원칙은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ㄷ. B: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가?  
ㄹ. C: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 주기 때문에, 인간은 성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성현(聖顯)입니다. 성스러운 나무, 성스러운 돌은 정확히 그것이 성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보여 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숭배를 받는 것입니다. 종교의 역사란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고도로 발달된 것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성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인간이 성스러운 존재들에 의지하여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 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의례나 신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으로 행동합니다.



- ① 성스러움과 속됨은 서로 양립할 수 있지만 조화될 수는 없다.
- ②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만들어 내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 ③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실재의 단 한번 드러남으로 이루어진다.
- ④ 돌이나 나무는 그 자체로 성스럽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된다.
- ⑤ 성스러움을 믿지 않는 인간이라도 은연중에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利]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害]를 없앴을 법도로 삼는다. 그는 자기 눈에 아름답고 귀에 즐겁고 몸에 편안함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옛 성왕(聖王)은 귀에 즐거워도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아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  
 을: 군자는 도(道)를 터득함을 즐기지만 소인은 욕망[欲]의 채움을 즐긴다. 도로 욕망을 통제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된다. 옛 성왕은 우아한 음악[雅頌]을 제정하고 이끌어 사람들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하였다.

<보 기>

ㄱ. 갑: 차별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해야 한다.  
 ㄴ. 을: 예법에 맞게 음악을 만들어 백성의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ㄷ. 을: 군자와 소인은 신분이 달라도 음악을 더불어 향유해야 한다.  
 ㄹ. 갑과 을: 어진 사람은 인격 도야를 위해서만 음악을 즐겨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조 대상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인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익 자체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한다.  
 을: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이지만 조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 ② 갑: 원조 결정 시 원조 주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③ 을: 원조의 차단점 설정은 원조 대상의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한다.
- ④ 을: 고통받는 사회의 기본 제도 개선을 위한 원조는 허용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고통받는 빈곤국의 복지 향상이 원조의 최종 목적이다.

1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경계가 무한하지만 모두 일심(一心) 안에 들어간다. 부처의 지혜는 모습을 떠나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고, 지혜와 일심이 온전히 같아져 둘이 없다. 따라서 지극히 공정한 부처의 뜻을 토대로 여러 주장을 조화롭게 융합[和諍]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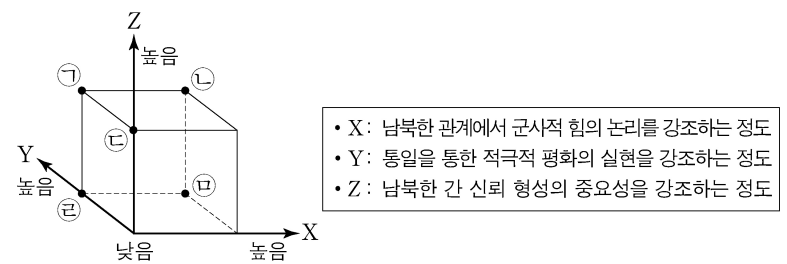
<문제 상황>

학급 회장인 A는 축제에서 학급 버스 운영 방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학급 친구들이 사진관, 오락실, 분식집 등 서로 다른 방안을 내세워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옳고 그름을 가려 자신만의 입장을 정당화하도록 토론하세요.
- ② 각 주장이 타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하세요.
- ③ 모든 의견을 통합할 수 없으므로 회장의 직권으로 결정하세요.
- ④ 다른 학급의 사례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유도하세요.
- ⑤ 모두 편협한 주장이므로 친구들 다수의 동의를 기초로 판단하세요.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따라서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과 강력한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나) 북한은 우리와 함께 평화 통일을 실현해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경쟁보다는 활발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룸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